

영어문장에 나타난 호격과 동격의 억양실현 양상의 비교*:

-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를 비교하여 -

The Intonational Realizations of Vocatives and Appositives in English:
Comparing English Native Speakers with Korean Students

박 순 북** · 오 세 풍** · 김 기 호**

Soon-Boak Park · Sei Poong Oh · Kee-H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intonational realizations of vocativ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appositives in English statements and questions, and to compare the realizations produced by English native speakers with those of Korean students. Unlike Pierrehumbert(1980), in which the tag expressions do not have pitch accents, Beckman & Pierrehumbert(1986) proposed that the vocatives have a special status in tonal alignment and duration and that they form an independent phrase with pitch accent. Our results reinforce Beckman & Pierrehumbert(1986): both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students realize the vocatives in terms of rising tone, and the appositives in terms of both falling tone in statements and rising tone in questions. Moreover, they pronounced the nouns before vocatives longer than those before appositives. However, native speakers impose the low phrase tone before vocatives in statements and the high tone in questions; whereas, Korean students either put the low phrase tone on pitch contours of both statements and questions, or tend to pause before vocatives, thereby constituting an intonational phrase.

Keywords: Intonational realizations, vocatives, appositives, pitch accent

1.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문장에 나타난 호격과 동격의 억양이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에 의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고찰하고 그 결과를 억양음운론이 가정하는 억양의미의 복합적 접근에 따라 해석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억양의미 해석방식의 기본적 틀은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근거함을 밝힌다.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Brain Korea 21-핵심분야'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으로 한국음성과학회 학술발표회(2000, 10, 14)에서 발표된 바 있음.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Pierrehumbert(1980)가 영어에 적합한 억양음운론을 제시한 이래로 영어의 호격이 갖는 지위에 대하여 매우 많은 관심이 있어 왔으며, Pierrehumbert & Beckman(1986)에 와서는 호격의 특정한 지위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영어의 호격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검토한 후에 실험에 임하였다.

2. 실험연구의 배경

Pierrehumbert(1980)에 따르면 다음 (1)에서와 같이 호격을 포함한 부가표현들(tag expressions)은 기본주파수(F0)의 흔들림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피치악센트를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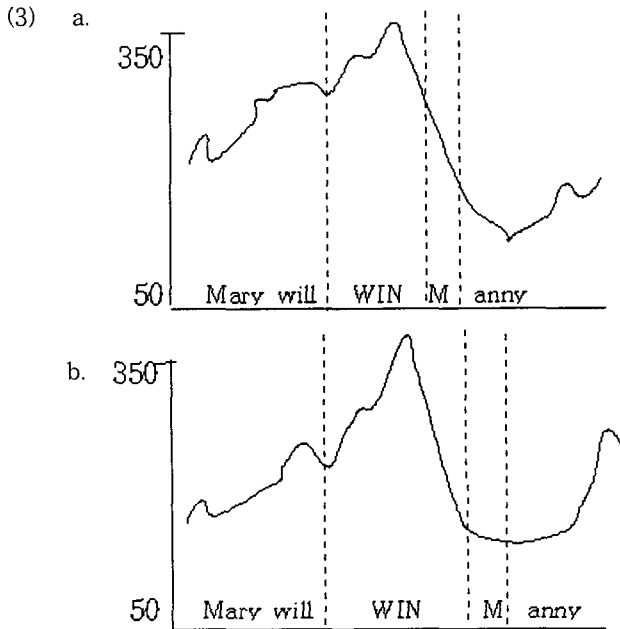
- (1) a. That's enough, thank you.
 b. He's sorry, isn't he?
 c. He forgot it, unfortunately.
 d. This is my sister, Mary.

Lieberman(1975)과 Bing(1979) 등에서 악센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 적이 있는 (1)의 각 밑줄친 표현들은 Pierrehumbert(1980)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센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Pierrehumbert(1980)에 의하면 비록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preposed)된 호격이 악센트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나 (1d)의 문미에 위치한 호격은 다음 (2)에서 보는 것처럼 악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 This is my sister, Mary.
 H* L- L- L%

(2)에서는 호격 'Mary'가 피치악센트를 갖지 않고 구성조(L-)와 경계성조(L%)만을 가지고 있다. Pierrehumbert(1980)에 따르면, 호격에서 피치악센트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부가억양(tag intonation)을 성조연쇄(tonal sequence)에서 후핵음 요소(postnucleat part)의 확장으로부터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호격을 포함한 (1)의 부가표현들을 독립된 구로서 간주하지 않고 주절과 동일한 억양구의 일부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꼬리에 위치한 호격이 악센트를 갖지 않는다는 Pierrehumbert(1980)의 주장과는 달리 Pierrehumbert & Beckman(1986)에서는 호격을 포함한 부가표현도 피치악센트를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구로서 간주된다. 다음 (3)을 통해 부가표현의 속성을 고려해 보자.



(3)에서는 'Mary will win Manny'에서 'win'에 초점이 있을 경우 목적격(3a)과 호격(3b)으로 실현된 억양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곡선에는 두 가지 유형의 차이가 있다. 첫째는 성조정렬(tonal alignment)의 측면에서 두 곡선이 대조적이다. 즉, (3a)에서 주파수 하강이 'win'에서 시작하여 'Manny'의 [m]과 후행모음에 지속되는 반면, (3b)에서는 주파수 하강이 'win'의 끝에서 완료되어서 'Manny'의 [m]의 주파수 단계는 낮으며 평평하다. 이러한 텍스트와의 정렬이외에 둘째로 길이의 차이가 있다. 즉, 'win'이 (3a)에서보다 호격을 갖는 발화 (3b)에서 훨씬 더 길다. 따라서 (3b)의 'Manny'에 L* 피치악센트를 부여하고 구 마지막에 상승의 가장자리성조인 LH%를 부여함으로써 호격이 갖는 성조정렬과 길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anny' 앞에 L 구성조를 설정하여 호격이 주절에 포함된 구가 아닌 또 하나의 독립된 구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에서는 호격을 동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와 같은 Pierrehumbert & Beckman(1986)의 논의에서처럼 호격이 피치악센트를 갖는 독립된 구를 생성하는지 우선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모국어 화자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화자의 억양실현을 비교하고자 한다.

3. 실험

본 실험은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호격과 동격의 억양을 비교하기 위해 영어의 서술문과 의문문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3.1. 피험자 및 실험 절차

첫째, 피험자 구성에 있어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모두 서울 소재 K대학교의 국제어학원에 재직 중인 외국인 강사들로서 표준 미국영어를 구사하는 20 세에서 50 세 사이의 미국인들이며,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는 모두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전혀 없는 K대학교 2-4학년 학생들이다.

둘째, 녹음에 있어서는 소음이 차단된 녹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호격과 동격을 대비시키는 자료라는 것을 인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녹음에서는 그들 각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여 주었다. 특히 한국인의 녹음시 한국인 화자가 호격과 동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을 다시 녹음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셋째, 전체 토큰의 수에 있어서는 평서문의 실험에서 모국어 화자 5 명(여1, 남4)과 한국인 화자 5 명(여5)이 10개의 문장을 3번씩 발화하여 150(5×10×3) 개를 구성하였으며, 의문문의 실험에서는 두 그룹의 5 명(모국어 화자: 여1, 남4; 한국인 화자: 여3, 남2)의 화자가 20 개의 문장을 3번씩 발화하여 300(5×20×3) 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녹음된 문장의 토큰은 UCLA에서 개발된 음성분석기인 PC-Quirer에 의해 파형과 피치,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2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구성하여 호격이 동격과 비교하여 특정한 운율적·음운적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2.1 평서문

- (4) a. I met your brother, Manny. (*vocative; talking to Manny*)
 b. I met your brother, Manny. (*appositive; talking about brother named Manny*)
- (5) a. I saw your sister, Nancy.
 b. I saw your sister, Nancy.
- (6) a. I have heard about your cousin, Mary.
 b. I have heard about your cousin, Mary.
- (7) a.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
 b.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
- (8) a. I want to go with your sister, Margaret.
 b. I want to go with your sister, Margaret.

3.2.2 의문문

- (9) a. Do you know my husband, Rick? (*talking to Rick*)
 b. Do you know my husband, Rick? (*talking about Rick*)
- (10) a. Did you see my sister, Sally?
 b. Did you see my sister, Sally?

- (11) a. Will you marry my friend, Jennifer?
b. Will you marry my friend, Jennifer?
- (12) a.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
b.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
- (13) a.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Margaret?
b.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Margaret?
- (14) a. Do you know my husband, Rick?
b. Rick, do you know my husband?
- (15) a.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
b. Richard,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 (16) a. Will you marry my friend, John?
b. John, will you marry my friend?
- (17) a. Did you see my sister, Sally?
b. Sally, did you see my sister?
- (18) a.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Margaret?
b. Margaret,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9)에서 (13)까지의 문장은 호격과 동격의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14)에서 (18)의 문장은 호격이 문미에 있는 경우와 전치된(preposed)경우의 쌍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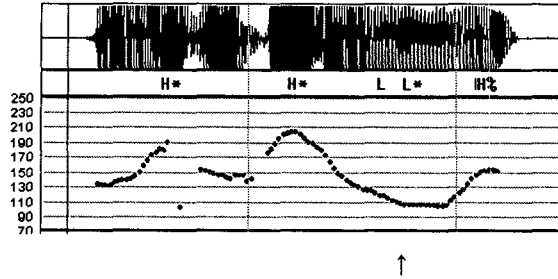
4. 실험 결과

영어의 평서문과 의문문에서의 호격과 동격의 억양실현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영어 모국어 화자의 실현양상과 한국인 화자의 실현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4.1. 모국어 화자

4.1.1 평서문의 억양실현

평서문의 경우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호격과 동격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호격은 상승조에 의해, 동격은 하강조에 의해 실현되었다. 즉, 호격엔 L* LH%가 부여되었으며 호격 앞에 L 구성조가 구현되었다. 다음 그림 1은 모국어 화자 B가 발화한 호격문장 (4a) 'I met your brother, Manny'의 피치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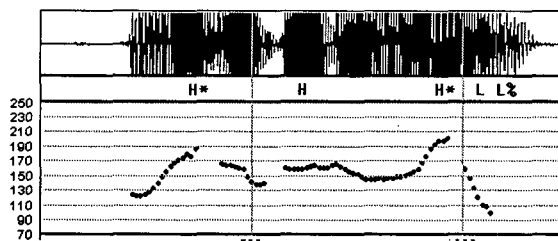


(4a) I met your brother, Manny (vocative)
 H* H* L L* LH%

그림 1. 모국어 화자 B의 (4a)의 피치곡선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Manny'는 낮은 상승조 L* LH%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바로 앞에 중간구의 경계 L 구성조가 구현되어 있다. 즉, 'Manny'의 [m]이 'brother'가 끝나 피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Pierrehumbert & Beckman(1986)에서 주장하는 호격실현의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 전체 발화에서 'met'과 'brother'에 각각 H* 피치악센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 문장은 '네 동생 만났어'를 새로운 정보로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격문장은 하강조인 'H* LL%', 또는 'LH* LL%'에 의해 실현되었다. 대부분의 모국어 화자는 휴지 없이 하나의 억양구를 구성하나 화자 D의 경우는 동격 앞에 휴지를 두어 두 개의 IP로 실현하였고 첫 번째 억양구를 하강조인 'H* LL%'에 의해 구현하였다. 다음 그림 2는 화자 B가 발화한 동격문장 (4b)의 곡선이다.



(4b) I met your brother, Manny (appositive)
 H* H H* 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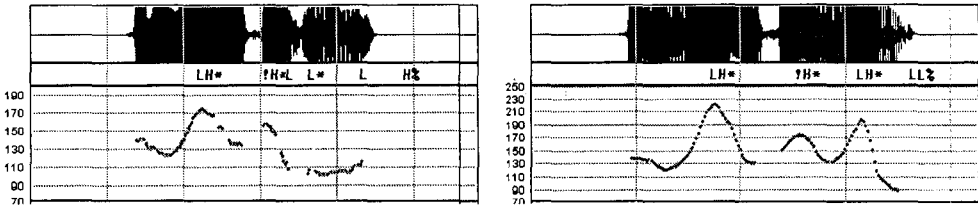
그림 2. 모국어 화자 B의 (4b)의 피치곡선

그림 2에서는 동격으로 쓰인 'Manny'가 호격으로 쓰인 것과 대조적으로 피치가 아래로 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강조의 'H* LL%'로 실현되었다.

둘째, 모국어 화자는 호격 앞의 명사에 악센트를 부여한 반면, 동격 앞 명사에 악센트를 부여하는 비율은 호격과 비교하여 크게 떨어진다. 모든 외국인 화자가 호격 앞 명사에 악센트를 부여한 것은 호격 앞 명사가 주절의 마지막 음절, 즉 성조음절(tonic syllable)을 형성하므로 영어 문장강세 규칙에 따라 그 자리에 악센트가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위에서 살펴본 그림 1과 2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의미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으로서 문장 (7)의 억양 실현양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화자 C를 제외한 모든 모국어 화자들은 (7a)와 (7b)에서 주어 'He'를 강조하여 H*를 부여하였고 화자 C의 경우에는 (7a)와 (7b)에서 각각 동사 'marry'에 이중성조 LH*를 부여하고 그 뒤에 단계하강에 의해 실현하였다. 즉, 'He'를 강조한 모국어 화자는 (7)의 문장을 '누가 결혼한다니?'에 대한 대답으로 간주하여 'He'에 초점을 두어 발화한 것이며 화자 C는 상승의 이중성조에 의해 발화하여 '결혼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서 정도(scale)를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LH*에 의하여 '결혼한다는데...(정말 놀라워)'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H* 뒤에서 'friend'에 부여된 단계하강 악센트(!H*)에 의해 '그 친구(와 결혼한다)'등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 그림 3에서 화자 C가 발화한 호격의 (7a)와 동격의 (7b)의 예를 살펴보자.



(7a)He will marry my friend, Maria.(voc..) (7b)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app.)
 LH* !H*L L* LH% LH* !H* !H* LL%

그림 3. 모국어 화자 C가 발화한 (7a, b)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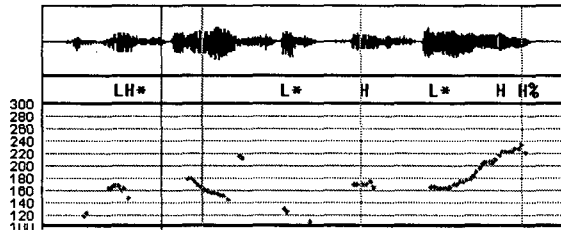
그림 3은 모국어 화자가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를 한 번은 호격문장으로, 또 한 번은 동격문장으로 발화한 것이다. 'He will marry my friend'가 LH* !H*를 구성하여 단순한 H*의 의미라기보다는 상승의 이중성조가 가리키는 강세받은 음절의 현저함의 정도(scale)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중성조에 의한 악센트는 (7) 문장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넷째, Pierrehumbert & Beckman(1986)의 논의에서와 같이 호격 앞의 명사가 동격 앞의 명사보다 길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각 문장을 세 번씩 발화한 것에 대하여 호격 앞 명사와 동격 앞 명사의 길이를 쟀 후 이를 화자별로 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est)을 실시한 결과 매우 높은 유의확률 값(Significance)을 얻었다. (4)에서 (8)까지의 문장에서 모국어 화자 5명은 각각 0.0005, 0.0005, 0.0005, 0.003, 0.0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각 문장별 대응 T-검정 또한 모든 문장에서 0.0005의 매우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호격 앞에 L 구성조를 설정하여 중간구의 경계가 있음을 주장한 Pierrehumbert & Beckman(1986)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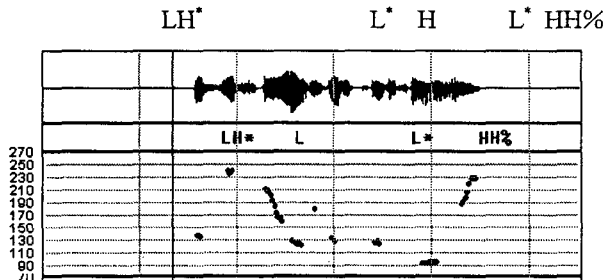
4.1.2 의문문의 억양실현

의문문의 유형에서 호격은 동격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첫째, 호격과 동격은 거의 동일한 억양음조로 실현되었다. 즉, 호격과 동격을 'L* LH%', 'L* HH%', 또

는 'L* HL%' 등의 저성조 피치악센트 L*와 다양한 가장자리성조의 결합에 의해 실현하였다. 단, 동격에서는 'L* HL%'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그림 4에서 모국어 화자 E의 (10) 'Did you see my sister, Sally?'의 피치곡선을 살펴보자.



(10a) Did you see my sister, Sally? (voc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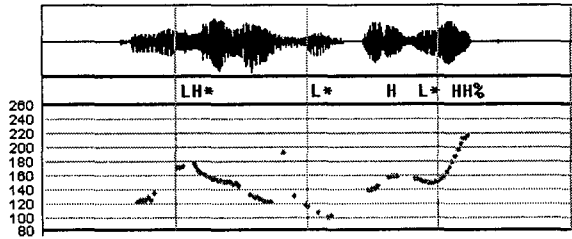


(10b) Did you see my sister, Sally? (appositive)

그림 4. 모국어 화자 E가 발화한 (10a, b)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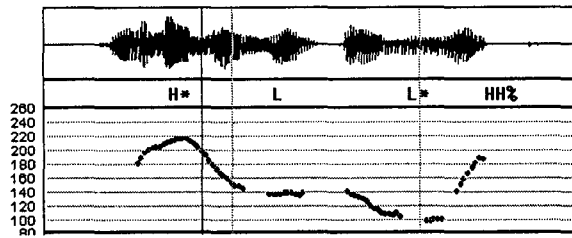
그림 4에 의하면 두 억양곡선이 'Sally'부분에서는 동일한 상승조역양(L* HH%)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두 곡선에는 두 가지의 음성·음운적 차이가 있다. (10a)에서 호격 앞에 H를, (10b)에서는 L를 부여한 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며, (10a)의 호격에 부여된 L*가 (10b)의 동격에 부여된 L*에 비하여 주파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차이점이다.

둘째, 영어 모국어 화자는 호격 앞에 H 구성조를 부여한 반면, 동격 앞에는 L 구성조를 부여하거나 또는 구성조를 부여하지 않는다. 호격문장을 두 개의 억양구로 발화한 모국어 화자 B와 C의 경우, 첫 번째 억양구, 즉 주절을 L* HH%에 의해 실현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 두 화자가 휴지를 두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호격 앞을 H 구성조로 실현시켰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에서 화자 E가 발화한 (9) 'Do you know my husband, Rick?'의 피치곡선을 고려해 보자.



(9a) Do you know my husband, Rick? (vocative)

LH* L* H L*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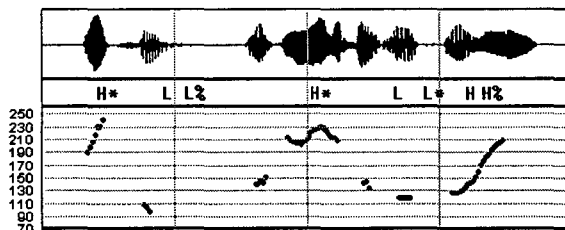
(9b) Do you know my husband, Rick? (appositive)

H* L L* HH%

그림 5. 모국어 화자 E가 발화한 (9a, b)의 피치곡선

그림 5에 의하면 두 억양곡선은 호격과 동격에 해당하는 'Rick' 앞에 서로 다른 유형의 구성조를 갖는다. 즉, 호격문장에서는 H가 부여된 반면, 동격문장에서는 L가 실현되었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는 의문문에서 호격 앞에 H를, 동격 앞에 L를 부여함으로써 두 문장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치된 호격의 경우, 'H* LL%', 'H* LH%', 'L* HH%', 'L* LH%', 'L* HL%'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6은 화자 A가 발화한 (15b)의 피치곡선이다.



(15b) Richard,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appositive)

H* LL% H* L L* HH%

그림 6. 모국어 화자 A가 발화한 (15b)의 피치곡선

그림 6에서는 호격이 전치된 문장 'Richard,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의 억양에서 'Richard'가 하강조의 억양 'H* LL%'에 의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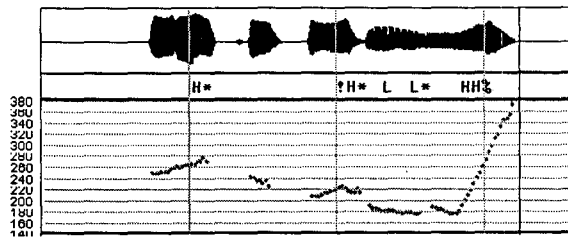
넷째, 평서문의 자료 중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에서 주어가 강조되거나 'marry'에 이중성조가 부여된 후 단계하강 악센트가 뒤따라오는 현상이 의문문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marry'에 L*H가 부여됨으로써 이 문장은 '(정말로) 결혼할거니?'라고 묻고 있으며, 'friend'에 부여된 !H*에 의하여 '내 친구하고 말이니?' 등의 단정적인 어조로 'Jennifer가 내 친구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화자의 강한 의심을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국어 화자는 의문문에서도 평서문에서와 같이 호격 앞 명사가 동격 앞 명사보다 길게 나타났다. 5명의 각 화자는 0.0005, 0.0005, 0.0005, 0.003, 0.001의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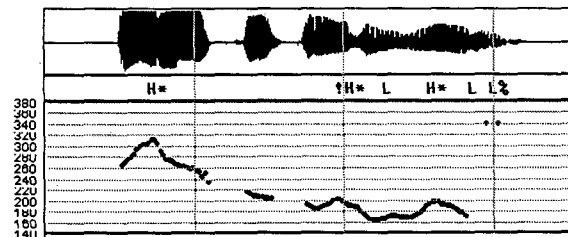
4.2 한국인 화자

4.2.1 평서문의 억양실현

한국인 화자의 실험결과, 모국어 화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점 및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인 화자는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호격을 상승조(L* LH%)에 의해, 그리고 동격을 하강조(H* LL% or LH* LL%)에 의해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호격 앞에 L 구성조를 부여하였다. 다음 그림 7은 한국인 화자 A가 발화한 (4a)와 (4b) 'I met your brother, Manny'의 피치곡선이다.



(4a) I met your brother, Manny (vocative)
H* !H* L L* HH%



(4b) I met your brother, Manny (appositive)
H* !H* L H* LL%

그림 7. 한국인 화자 A가 발화한 (4a, b)의 피치곡선

그림 7에 의하면 모국어 화자와 'Manny'의 억양실현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Manny'가 호격문장에서는 L* HH%의 상승조로, 동격문장에서는 H* LL%의 하강조로 실현되었다. 단계하강 악센트에 의한 문장은 예를 들어, (4a)에서는 '네 동생 만났어! (또는 만났다니까!)'라는 새로운 정보로서의 사실에서 그 말을 거기서 완료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 화자의 억양실현이 모국어 화자의 그것과 유사한 또 다른 점은 한국인 화자가 호격 발화 시 호격 앞 단어, 즉 주절의 맨 끝 단어(성조음절)에 악센트를 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 그림 1의 (4a)와 그림 7의 (4a)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셋째, 외국인화자와 또 다른 유사점은 한국인 화자들도 (7) 문장에서 'He'를 강조하여 발화하거나 H* 뒤에 단계하강을 겪기도 하며 또는 이중성조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8에서 이러한 (7a)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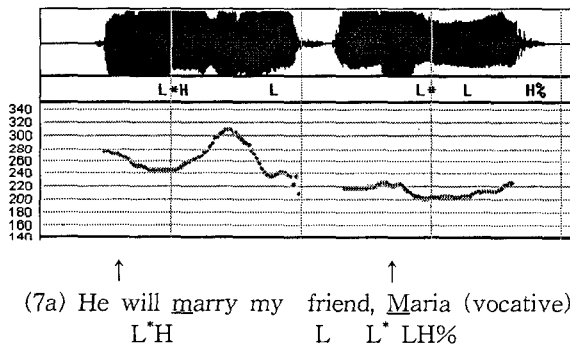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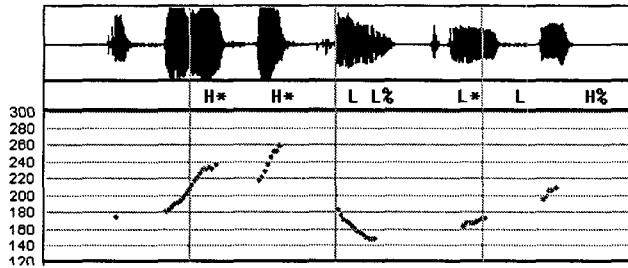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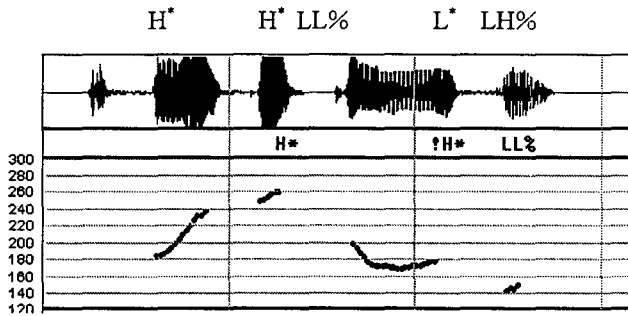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인 화자 E가 발화한 (7a)의 피치곡선

그림 8에 의하면 한국인 화자가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7a)의 문장에서 호격인 'Maria'에 낮은 상승조의 'L* LH%'를 부여하고있다. 단지 'marry'에 LH*가 아닌 L*H 이중성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의 의미가 '(그가 내 친구와) 결혼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에 의하면 L*H는 화자의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악센트이다.

넷째, 한국인 화자가 외국인 화자와 마찬가지로 상승조 또는 하강조와 같은 억양형태에 의해 호격과 동격을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인 화자 B와 D의 경우에는 호격 앞에 억양구의 경계를 두어 경계의 유무에 의해 호격과 동격을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호격문장에서 첫 번째 억양구를 'H* LL%'에 의해 끝내고 있다. 다음 그림 9를 통해 화자 D가 발화한 (5a)와 (5b)의 억양을 검토해 보자.



(5a) I saw your sister, Nancy. (vocative)



(5b) I saw your sister, Nancy (appositive)

H* !H* LL%

그림 9. 한국인 화자 D가 발화한 (5a, b)의 피치곡선

그림 9에서는 'I saw your sister, Nancy'를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발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5a)와 (5b)가 구의 경계에 의해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격문장인 (5b)에서 하나의 억양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호격문장인 (5a)에서는 'Nancy' 앞에 휴지를 두어 전체 문장을 두 개의 억양구로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 화자는 억양형태에 의해 호격과 동격을 구분하기보다는 경계의 유무에 의해 구분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다섯째, 한국인 화자는 외국인화자와 달리 기능어(function words)를 강조하여 악센트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모든 화자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예를 들어, 화자 A는 특히 주어(I)를 강조하고 화자 B와 C, 그리고 D는 조동사 'have, will' 등에 악센트를 부여하거나 전치사 'to, about, with'에 고성조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다음 그림 10에서는 호격문장 (7a)와 (8a)의 억양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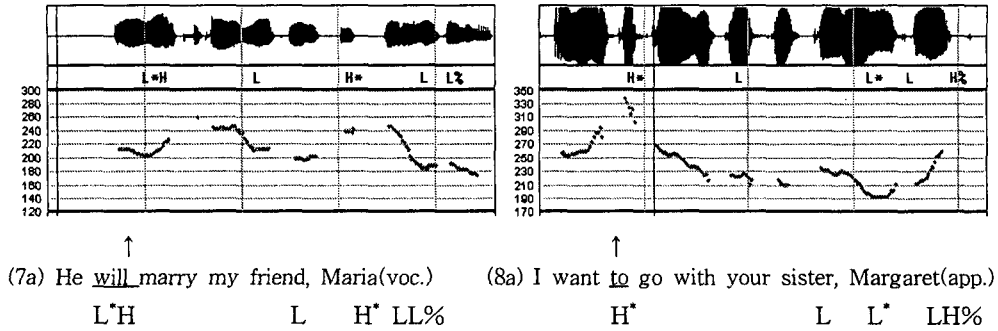


그림 10. 화자 D의 (7a)와 화자 E의 (8a)의 피치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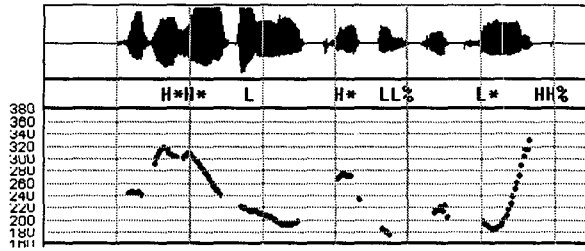
그림 10에서는 문장 (7a) ‘He will marry my friend, Maria’와 (8a) ‘I want to go with your sister, Margaret’이 각기 다른 화자에 의해 발화되었을 때 강조되는 위치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7a)에서 화자 D는 ‘will’을, 그리고 (8a)에서 화자 E는 ‘to’를 강조하여 각각 H* 악센트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화자에서도 모국어 화자에서처럼 호격 앞 명사의 길이를 동격 앞 명사의 길이와 비교하였을 경우 화자별 대응 T-검정에 의해 호격 앞 명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0.001 이상)으로 동격 앞 명사보다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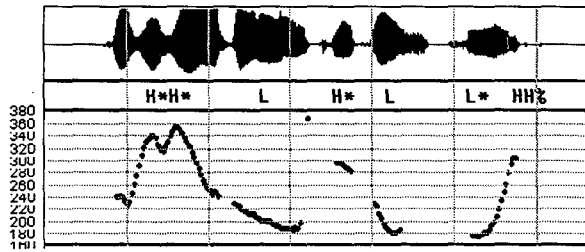
4.2.2 의문문의 억양실현

의문문에서 한국인 화자의 호격과 동격의 실현양상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인 화자는 모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동격과 호격을 동일하게 ‘L* LH%’ 또는 ‘L* HH%’에 의해 실현시켰다. 그러나 ‘L* HL%’의 억양형태로 실현하지는 않았다.

둘째, 한국인 화자는 동격 앞에 L 구성조를 부여하였으나 호격 앞의 구성조 실현에 있어서는 모국어 화자와 달리 화자 E를 제외하고 모든 화자가 호격 앞에 휴지를 둬으로써 전체 호격문장을 두 개의 억양구로 발화하였다. 한국인 화자의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을 다음 그림 11을 통하여 살펴보자. 그림 11은 한국인 화자 C가 발화한 (12)의 문장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의 피치곡선을 보여준다.



(12a)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 (vocative)
 H* H* L H* LL% L* 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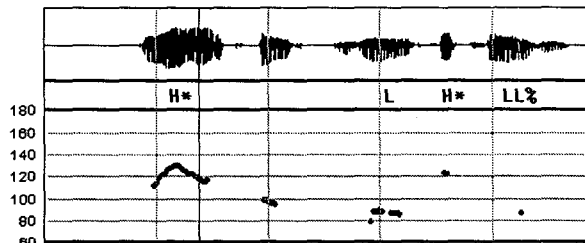


(12b)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 (appositive)
 H* H* L H* L L* HH%

그림 11. 한국인 화자 C가 발화한 (12a, b)의 문장

그림 11에서는 한국인 화자가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Richard?'라는 문장을 호격과 동격의 다른 형태로 발화하였을 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즉, (12a)와 (12b)의 'Richard'에 동일한 'L* HH%'가 실현되었으나 호격문장인 (12a)에서는 'Richard' 앞에 (12b)에서와 달리 억양구의 경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 화자는 호격을 두 개의 억양구에 의해 실현하면서 첫 번째 억양구를 하강조로 구현하고 있다.

셋째, 모국어 화자 C가 동격의 문장을 마치 확인의문문에서처럼 하강조의 억양(H* LL%)으로 발화한 것과 같이 5명 중 4명의 한국인 화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격문장을 'H* LL%'에 의해 문장을 끝내고 있다. 다음 그림 12의 피치곡선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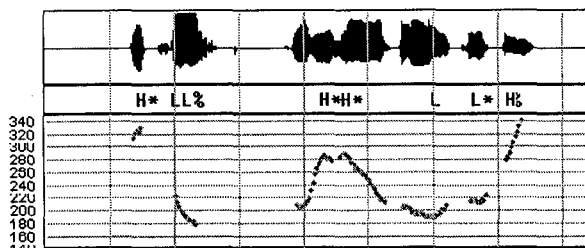


(13b)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Margaret? (vocative)
 H* L H* LL%

그림 12. 한국인 화자 E가 발화한 (13b)의 피치곡선

그림 12는 한국인 화자 E가 (13b) 'Do you want to go with my sister, Margaret?'을 발화한 것을 보여주는 피치곡선이다. 문장의 끝이 하강조의 억양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단 H* 피치악센트가 'Margaret'에 있는 것이 아니라 'sister'의 첫 음절에 있다.

넷째, 호격이 앞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한국인 화자가 'H* LL%'에 의해 발화하였다. 다음 그림 13은 화자 C가 발화한 (15b)의 피치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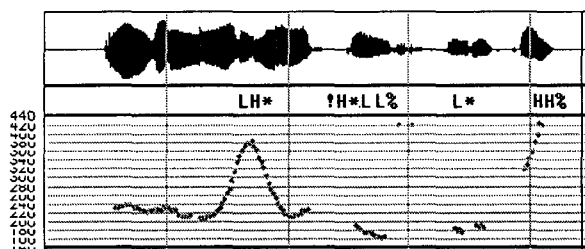


(15b) Richard,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
 H* LL% H* H* L L* HH%

그림 13. 한국인 화자 C가 발화한 (15b)의 피치곡선

그림 13에서는 (15b) 문장 'Richard, have you heard about my cousin?'의 피치곡선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동된 'Richard'가 H* 악센트를 가진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었다.

다섯째,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서와 유사한 현상으로서 문장 (11) 'Will you marry my friend, Jennifer?'와 (16) 'Will you marry my friend, John?'에서 한국인 화자는 상승의 이중성조 악센트를 구현시켰다. 다음 그림 14는 (11)의 피치곡선이다.



(11) Will you marry my friend, Jennifer? (vocative)
 LH* !H* LL% L* HH%

그림 14. 한국인 화자 B가 발화한 (11a)의 피치곡선

그림 14에서 'marry'에 LH* 악센트가 부여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단계하강 악센트가 실현되고 있으므로, (11)의 의미는 모국어 화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의심스러움을 전달하고 있다. 단, 한국인 화자의 경우 악센트의 단계하강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이중성조 악센트 뒤에 L가 단계하강을 저지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화자의 경우에서도 화자별 평균 0.001을 넘는 수치로 유의미하게 호격문장에서 명사의 길이가 동격에서보다 통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평서문과 의문문에서의 호격 대 동격의 문장에 나타난 억양 실현양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결론지어 볼 수 있겠다. 우선 평서문과 의문문이라는 두 문장유형에서 모국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는 모두 호격을 상승조에 의하여 실현하였으며, 동격을 평서문에서는 하강조로, 의문문에서는 상승조로 구현하였다. 모국어 화자가 호격 앞에 L 구성조를 부여함으로써 호격이 하나의 독립된 구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길이의 측면에서, 두 화자의 억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호격 앞의 명사의 길이가 동격 앞의 명사의 길이보다 길게 나타났다. 영어에서 운율 경계 강도가 억양구>중간구>운율단어>음보>음절 순으로 작아진다고 할 때 호격 앞의 명사가 동격 앞의 명사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어떤 유형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단어보다는 크고 억양구보다는 작은 중간구를 호격 앞에 놓음으로써 저 상승조의 억양을 갖는 호격의 독립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한국인 화자들의 호격 실현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와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인 화자는 의문문에서 호격을 외국인 화자처럼 'L* LH%' 또는 'L* HH%'로 구현하지만 'L* HL%'의 정형화된 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HL%가 호격곡선의 대표적인 형태(가장자리 성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 화자들이 이러한 정형화된 성조의 형태를 잘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발화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평서문의 호격 실현 시 한국인 화자가 외국인 화자와 크게 다른 점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공통적으로 호격 앞에 휴지를 두어 호격과 동격을 억양구의 경계로 구분하였으며, 호격 앞의 첫 번째 억양구가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모국어 화자의 실현양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호격 앞 명사, 즉 주절 마지막에 오는 성조음절에 악센트를 주거나 동사나 명사 등의 내용어에 악센트를 주는 등의 영어가 가진 운율적 특징들이 억양곡선에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인 화자는 전치사나 조동사에 악센트를 주거나 또는 주어를 강조하는 등의 영어의 일반적 운율특성과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영어의 리듬과 억양의 실현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인 화자는 호격이 앞으로 이동될 경우 외국인 화자가 모두 다섯 가지 정도의 매우 다양한 형태의 억양을 구현한 반면, 한국인 화자는 대부분 'H* LL%'에 의해 실현하였다. 이는 호격문장에서 두 개의 억양구로 발화하였을 경우 첫 번째 억양구를 'H* LL%'의 하강조로 끝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한국인 화자는 문제가 되는 구가 의문문의 끝이 아닐 때 이를 평서문의 일반적 형태로 인식하여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는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 영어의 호격억양을 잘 실현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모국어 화자의 실현양상 중 특이할 만한 양상으로서 호격이 L*에 의해 실현될 때 한국인 화자의 경우와 달리 모국어 화자의 경우 주파수 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L*의 피치는 호격문장에서 다른 저성조 악센트의 피치곡선과는 달리 중립선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음성적인 '미도달(undershoot)' 현상으로 간주

하고자 한다. 미도달 현상은 음운적인 기저의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즉, 음성적인 차원의 이야기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도달 현상이란 피치곡선에서 저 악센트로 전사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피치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의 호격문장 (10a) 'Did you see my sister, Sally?'에서 'sister'의 마지막 음절이 끝나는 지점에 H 구성조를 형성하기 위해 주파수가 올라갔다가 'Sally'의 발화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촉박하여 'Sally'에 정렬된 L*는 여타의 피치곡선에서 볼 수 있는 충분히 낮은 계곡점(valley)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ally'에 정렬된 성조는 음운적으로 L*로 전사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몇 가지 실험결과를 논의한 결과, 궁극적으로 평서문과 의문문에서의 호격문장이 갖는 유의미한 길이의 차이와 텍스트가 성조와 정렬되는 양상 등에서 동격의 실현양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므로, 영어의 호격은 피치악센트를 갖지 않는 주절에 포함된 구가 아니라 'L* LH%'라는 저 상승조의 억양을 갖는 독립적인 구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호. 1999a.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43.
- [2] _____. 2000b.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억양 의미 분석," *음성과학*, 7(3): 109-25
- [3] Beckman, M. and J. Pierrehumbert. 1986. "Intonational structure in Japanese and English," *Phonology Yearbook*, 3: 15-70.
- [4] Bing, J. M. 1979. "Aspects of English prosody,"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5] Liberman, Mark. 1975. *The Intonational System of English*. Ph.D. thesis, MIT. (Distributed 1978 by IULC).
- [6] Pierrehumbert, Janet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 [7] Pierrehumbert, Janet. and Julia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pp. 271-311.

접수일자: 2000. 10. 28.

게재결정: 2000. 11. 29.

▲ 박순복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1-7 삼익소월아파트 373-102 (우: 435-050)

Tel: +82-31-395-1061 (H)

E-mail: scully@igroupnet.co.kr

▲ 오세풍

서울시 관악구 신림 13동 706-6호(우: 151-023)

Tel: +82-2-864-7833 (H)

E-mail: seyu@chollian.net

▲ 김기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우: 136-701)

Tel: +82-2-3290-1988 (O)

E-mail: keehokim@kuccnx.korea.ac.kr